

요를레이~ 어린이들이 만든 요들나라에 초대합니다



세무사, 조각가, 시인 겸 동화작가, 작곡가, 극작가 겸 연출가.
전방위 활동중인 (사)섬진강 도깨비 마을 촌장 김성범(51)씨는 '요들'에 푹 빠져 있다. 10년 전 첫번째 동요 '도토리 한알'을 만든 이후 동심 가득한 노래를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8장의 음반을 낸 그가 요들과 친해진 건 3년 전. 아이들에게 자연을 노래하는 요들을 가르치고 싶어 엔시안 요벨클럽(회장 김숙남) 회원으로 참여한 게 계기가 됐다.

회원들과 함께 요들을 부르며 행복을 느끼고 위로를 받았던 그는 아예 2년전부터 동요 요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오는 22일(오후 7시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열리는 엔시안 요벨클럽 정기연주회 '창작 동요 요들 발표회'에서 김씨는 회원들과 다양한 동요 요들을 선보인다. 동요 요들 발표회는 국내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날 들려주는 노래는 '요술 마용살', '도깨비 요들', '봉어빵 요들' 등 다채롭다. 대부분 김씨가 직접 쓴 시에 멜로디를 붙인 곡들로 아이들의 마음이 담긴 재미있는 가사가 눈길을 끈다.
"동요 요들송을 만들면서 진짜 재미있었어요. 요들이라는 장르 자체가 맑고 깨끗한 느낌을 주죠. 발생 자체도 즐겁구요. 동요 요들송은 특히 함께 부르다 보면 모두 장난스러워지고 개구쟁이가 되는 듯해요. 또 요들은 아이들이 하는 놀이와 무척 닮았기도 해요. 회원들이 새 노래를 배우느라 힘들었을 거예요. 많이들 고맙죠."



김씨는 특히 동요 요들을 아이들 뿐 아니라 엄마·아빠도 함께 불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민망스러운 가사로 만들어진 대중가요를 아이들이 따라부르는데도 어른들이 사랑스런 눈빛으로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죠. 어른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동요 요들 뿐 아니라 다양한 동요들도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엔시안요벨클럽은 1977년 창립된 동호회로 알프스의 자연을 노래하는 청량한 음악들을 꾸준히 부르고 알려왔다. 단체 이름엔시안은 스위스 꽃이름에서 따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동요 요들 뿐 아니라 '아름다운 산' 등 다양한 요들과 블루그래스 음악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연엔 '희말라야 아이들'을 후원하는 공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네팔에서 의료선교를 하며 10년간 9명의 버려진 아이들을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장연순·고연희씨 부부를 돕는 공연으로 관객들의 작은 성금(1000원 이상)과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2001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동화로 등단

한 그는 문학동네 어린이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비밀로 가득 찬 세상', '도깨비를 찾아라', '뽀뽀한 칭찬 통장' 등 많은 책을 출간했다. 특히 올해 개정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동화 '책이 꼬지락 꼬지락'이 수록되기도 했다.
광주시미술대전에서 수상한 조각가이기도 한 그는 섬진강 도깨비 조각전시회 등 다양한 전시회를 열었으며 '뿌지직 뽕' 등 인형극의 극



**섬진강 도깨비 마을 촌장 김성범 동화작가
아이들 마음 담긴 동요 요들 만들어
엔시안 요벨클럽 22일 발표회... 히말라야 아이들 후원**

본을 쓰고 연출도 했다. 또 EBS 교양 프로그램 '요리비(秘)전'(월 오후8시20분)의 진행자로도 활동중이다. '향토 음식을 따라 떠나는 인문학 기행'을 모토로 한 '요리비전'에서 섬진강의 먹을거리를 소개했던 그는 17일부터 3일간 경남 산청의 먹을거리를 촬영중이다.
예비사회적 기업 '도깨비 마을' 대표인 김씨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마무리중이다. 곡성 섬진강변 일대에 들어설 6만평 규모의 도깨비 공원, 전시관과 공연장, 체험학습장 등을 갖춘 도깨비 공원은 오는 7월께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공연 문의 010-2654-1253.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소는 우두커니 서있다

은암미술관, 진한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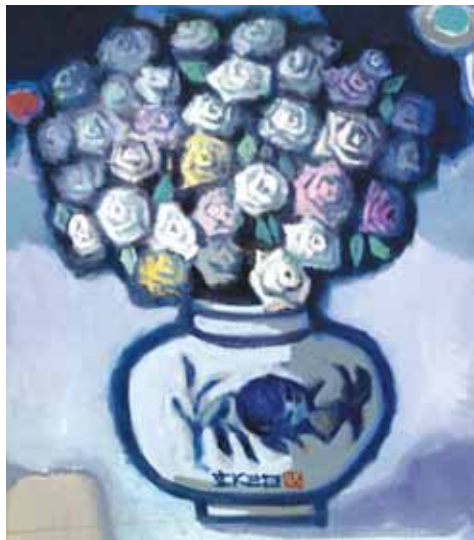
'소 스케치'

은암미술관은 진한(1913~1951년) 화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오는 25일까지 '진한 전-고향, 문헌적 풍경'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인의 스케치와 유화 작품, 친필원고 '소의 일기(日記)'가 함께 전시된다. 진 화백의 차남이자 서양화가인 진경우씨가 아버지의 작품을 재해석한 작품도 선보인다.
진 화백은 주로 소를 소재로 향토적 서정이 짙게 묻어나는 작품들을 그렸다. 그는 소를 '힘차고도 운순한 뽕(씨)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전북 고창에서 태어난 진 화백은 동경 일본미술학교에서 양화를 전공하면서 화가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에도 일본에서 신자연파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일제 식민지하에서 침해당하던 민족 예술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특히 1941년에는 이중섭, 이쾌대, 김종찬, 문환수 등과 함께 조선 신미술가협회를 조직해 민족적인 전통과 모더니즘을 결합한 새로운 미술세계를 만들기 위해 힘쓰기도 했다. 이후 1948년에 설립된 홍익대 미술과 교수로 취임했지만 6·25 전쟁중에 38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 당시 많은 작품이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062-231-5299.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월출산에서 범성포구까지'

故 최연섭 화백 유작전, 다음달 14일까지 상록전시관

광주시립미술관은 다음달 14일까지 상록전시관에서 '월출산에서 범성포구까지'를 주제로 고(故) 최연섭(1945~2002년) 화백 유작전을 연다. 개막식은 18일 오후 5시다.
이번 전시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작품 40여 점을 풍경화, 정물화, 인물화 3개 섹션으로 나눠 전시, 작가가 평생에 걸쳐 이룬 예술적 성과를 한눈에 살펴 볼 수 있게 구성됐다.
남도의 예술적 정취와 풍경은 최 화백이 예술가의 길을 걷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 고인은 평생 남도의 산과 강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화폭에 담아왔다. 월출산, 무등산, 범성포구, 눈 덮인 초가집 등 남도 풍경을 각종 정물을 한국적 색채가 짙은 웅기, 도기, 바구니 등에 담아 향토적 정서를 그려냈다.
최 화백은 강렬한 빛과 색의 향연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남도 서양화 인상주의 화풍을 이끌던 오지호 화백과 임지순 화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스승의 작품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사물의 색과 형태를 주관적인 감성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재해석했다. 한국적이고 독창적인 색과 다양한 조형성 실험이 완성된 것이 특



'장미'

징이다.
영암에서 태어난 최 화백은 전남도 미술대전과 광주시 미술대전 초대 작가 및 심사위원, 광주미술상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서석고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기도 했다. 문의 062-613-540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자연·사람·문화 한데 어우러진 '대담미술관'

20일 3주년 기념음악회... 박완규 무대에

담양군 향교리 대담미술관이 어느덧 개관 3주년을 맞았다. 지난 3년간 향교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대담미술관의 도움으로 작가로 데뷔했고, 작가들은 이곳에서 자연과 사람,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전시를 선보였다.
시민들에게는 여유롭게 차 한잔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기도 했다.
대담미술관이 개관 3주년을 맞아 20일 오후 7시30분 대담미술관 야외무대에서 기념음악회를 개최한다. '나가수'에서 호소력 짙은 보이스로 선보였던 가수 박완규(사진)가 출연할 예정

이다.
미술관 관계자는 "대담미술관은 방문객 모두가 주인"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 음악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입장료는 1만원이며 전화(061-381-0081~2) 및 홈페이지(www.daedam.kr)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건축단체연합, '광주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2013 광주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주제로 현지계량방식 창조마을·희망만들기 사업, 공·폐가를 활용한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도심 골목길과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도시재생에 관한 아이디어를 A1용지 1

매 분량으로 제출하면 된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등록은 오는 9월27일까지, 작품접수는 10월7~10일이다.
대상 1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50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 문의 062-521-0025.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보약, 흥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흥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흥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